

RD(Sanghyeong Park)_1st PHOTO solo exhibition

day after days

2014-2015



GALLERY STAN

2018/05/25 ~ 2018/06/24

opening 2018/05/25 6PM

Dosandaero 30 gil 24, Seoul [Gallery Stan]



instax



■ 전시 개요

전시명	Day after days		
작가명	박상형 (a.k.a. Rd)		
전시기간	2018.05.25 (금) - 2018.06.24 (일)		
전시담당	주최	송인지 (아트컨시어지뉴욕)	010-2757-4217 / inji@artconciergeny.com
	주관	김태현 (갤러리스탠 서울)	010-9493-8045/ tae@artconciergeny.com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30길 24, B1 갤러리스탠 / 대표전화 02-2038-0839		

■ <Day after days 展> '일상을 기록한 순간이 모여 매일이 되기까지'

갤러리스탠은 2018년 5월 25일 부터 6월 24일 까지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박상형(a.k.a. Rd)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약 100여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상, 그 기록에서 느껴지는 무수한 날들의 다채로운 감정을 담은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오브제들을 기록하는 작가의 시선을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한번쯤은 마주했을 그 모든 공간의 단면을 조명하는 작가의 사진은 자유로운 시선의 흐름과 동시에 다중적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담은 듯한 같은 모양의 박스들, 같은 모양의 미터기 이지만 얹히고 얹혀 자신의 자리에 놓여있는 모습은 흡사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기록이라는 행위가 주는 일상의 생경함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 순간이, 오브제들이 무슨 색을 띄고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고 마주하는 순간순간을 조금 더 소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 전시 오프닝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30길 24, B1 갤러리스탠 에서 <Day after days展>의 오프닝이 오후 6시30분 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일 관람객 분들께 한해 후원사인 후지필름 인스탁스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박상형 (a.k.a. Rd) 작가님께서 촬영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작가노트



첫 필름을 넣던 때를 잊지 못한다. 어리숙한 손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며 필름을 넣던 내 첫 카메라.

그 때의 사진들을 고향집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겠지만, 다시 꺼내보지 못한지 어느덧 10여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을 사진과 함께한다. 나 또한 그래 왔지만 언젠가부터 아무생각 없이 사진을 찍는 내가 싫어졌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사진을 남기고 싶었다.

아마 언제 찍은지도 모르는 스마트폰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나 자신을 깨닫던 때와 맞물릴테다. 분명 나처럼 스마트폰 사진을 다시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테지.

이 전시는 그저 내가 찍고 싶었고, 내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록해둔 전시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오브제들을 그 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셔터를 누르던 때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자 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록을 담았다. 많은 사진 중에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사진들을 소개하니, 많은 사람들도 기록을 하는 행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